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사랑이란, 끊이지 않는 관심이다. 보살핌이다. 늘 생각하는 마음이다.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며 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나의 마음과 같이 매순간 어떤 것이든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나의 손발이 되어 살아야 한다.
2.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니 사랑의 문제가 생기고 표상도, 한계도 모르게 된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여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그 사랑을 형제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다.
3.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나의 뜻을 버리고 간 길이 옆에서 볼 때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도 본인 스스로는 나오기 힘들다. 사탄과 악령들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해 줘야 된다.
4. 내게 사랑을 다 준 자는 모든 것을 내게 준 자다.
5. 다른 것을 내게 다 주어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6. 누구든지 나를 향한 사랑빛이 무엇보다도 제일 찬란하게 빛난다.